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 Using 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Based on PBL Model: Focused on High School

강 주 연 (Ju Yeon Gang)** , 남 연 화 (Yeon Hwa Nam)***
노 형 관 (Hyoung Kwan Roh)**** , 김 용 (Yo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PBL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
| 2. 이론적 배경 | 5. 프로그램 구현 |
| 3. 5.18기록물 기록정보콘텐츠 현황 분석 | 6. 결론 및 제언 |

<초 록>

출처가 다양하고 양적으로 방대한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교육 모형은 PBL모형으로 다양한 기록물을 제시하고 기록관의 활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하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PBL의 기본 형태를 따르되 단계를 다시 이분화하여 수업이전단계와 수업구현단계로 나누고 수업이전단계를 세분화하여 제안하였다. 제시될 기록물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성되는 격자형 기록물지도를 사용하여 기록물 목록을 확보한 후 기록물을 선별하도록 한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실현은 기록관 이용의 활성화와 기록물 활용의 확장, 학습자들의 역사적 고취 등의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제기록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제안이라는 점과 학습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5.18민주화운동기록, 5.18아카이브, 교육프로그램, 주제기록관, PBL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 education program using the records and 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which are large in number and have diverse provenance. The PBL model, which is a basic model for this program, is appropriate for suggesting a number of records and inducing the use of archives. This program is based on the rule of PBL but is divided into two parts: a pre-class level and an in-class level. The archives list for this program is selected from the archives map, which consists of a horizontal axis of provenance and a vertical axis of creation time. The expected effects of this program is to vitalize and expand the use of archives and to inspire a student's historical thinking. This program is meaningful in proposing a proposed education program using the records and archives of a historical event and the probability to use in a real class.

Keywords: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education program, subject archives, PBL model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juyeongang@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starpo19@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대학원(dhsg08@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 아카이빙 연구소 연구원(yk9118@jbn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7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5년 8월 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31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9-54,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3.029>>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하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기록유산은 일련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진품”이어야 하고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자료”이면서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해야 하고, 또한 “이 유물의 손실 또는 훼손이 인류 유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이어야만 한다(5.18기록관 홈페이지). 즉,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문화 유산으로의 등재는 5.18기록물이 “유물이 진품”이라는 점과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 자료”라는 점에서 신뢰성과 진본성, 무결성을 입증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5.18기록물의 가치에 비해 5.18 기록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에 비해 빈약하며 그 활용 또한 많지 않다. 물론 민주화운동기록물로서 오픈아카이브와 국가기록원 등에서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 사용이 온라인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이 힘들다. 또한 실제적인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교사나 학습자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사와 근현대사의 교과서가 한권으로 통합되면

서 5.18민주화운동의 내용 또한 적어져 학습자의 심도 있는 학습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요컨대, 5.18기록물은 그 가치에 비해 활용이 제한적이고 실제 수업현장에서도 교과내용이 적어 심도 있는 학습이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5.18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5.18기록물의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여 학습자들에게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5.18기록물을 활용하여 고등학생에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식을 고취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PBL 모형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존재하는 5.18기록물에 대한 분석과 PBL모형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및 PBL의 개념과 5.18 기록물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5.18기록관 방문 및 관련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5.18기록물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5.18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높으며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있어 고등학생에게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째, 국가기록원, 오픈아카이브, 5.18기념재단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5.18기록물을 활용

한 기록정보콘텐츠를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의 한계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PBL의 기본 모형을 제시하고 새롭게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고려사항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고려사항과 관련된 분석대상은 '대상 이용자', '관련 교육과정', '소장 기록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이며 주로 관련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구조로 구상하였다. 요구사항과 관련된 분석대상은 '기록관의 이용 및 기록에 관한 교육', '기록의 맥락정보', '기록분석 활동지, 용어집, 해석본', '기록물지도'이며 주로 NARA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재구성하고 추가적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PBL 모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매핑(mapping), 즉 PBL 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록물을 바둑판 형식으로 배치하여 향후 PBL 모형의 문제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 지도'라는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것들을 고려하여 수업이전단계와 수업구현단계로 구성되는 PBL모형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이전단계에 비중을 높게 두고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5.18기록물에

관한 연구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PBL모형에 관한 연구,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5.18기록물에 관한 연구로 박정옥과 이명규(2013)는 5.18 기록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하여 생산기관-생산시기-주제-유형의 4단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박경석(2008)은 5.18 민주화 운동이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불씨를 당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5.18민주화 운동이라는 주제를 대상으로 수집과 보존,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제기록관의 경우 단일한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개발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설문원과 김익한(2006)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 이승만 시기의 국무 회의록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 걸친 당대의 정책 사안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심성보(2007)는 한국의 기록관리 현실 및 교육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리 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기록관리의 체계화와 전통적인 기록관리 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 교육용 서비스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업체계 구축, 기록정보와 주제별 교수·학습활동의 연계, 콘텐츠의 고품질화, 다른 기관과의 서비스 제휴 모색 등을 제

시했다. 김진 등(2013)은 언어적, 논리-수학적, 음악적, 공간적, 신체-운동적, 자연 친화,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지능을 말하는 다중지능이론과 학습자가 전자자원, 인적자원 등의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기반학습을 토대로 인식-이해-적용-분석-통합-평가의 여섯 단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통령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은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을 학습자에게 인지키시며 당시의 시대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필요한 기록물을 탐색하고 이용하게 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의 기록물의 가공은 대통령 기록물의 활용도를 증진시킬 것이라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2008)은 기록관의 기록물을 활용한 학습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기록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록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자료의 개발에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실제 초등, 중등 학생들의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활용하는 교육적 서비스의 제공을 촉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BL과 관련된 연구는 교육학계에서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BL모형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보이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영주(2003)와 이현아(2006)는 PBL모형의 국사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향상하였고 학습자들이 역사적인 비판의식을 함양하는데 PBL모형이 유용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김돈호(2009)는 앞선 두 연구가 PBL의 효용성은 입증하였지만 학습자의 수준,

평가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두 연구를 보완하여 PBL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PBL모형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5.18민주화운동기록물

5.18기록물은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다양한 유형과 출처를 갖고 있고 그 양 또한 방대하다(박정옥, 이명규, 2013). 5.18기록물은 생산주체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 기억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기록물이 분산소장 되어 있어 기록물의 통합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광주에 5.18기록관이 설립됨에 따라 5.18기록물의 원본 및 사본이 5.18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통합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5.18기록물은 생산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박정옥과 이명규(2013), 그리고 5.18교육관에서는 5.18기록물의 생산주체를 공공기관, 군 사법기관, 의료기관, 민간단체의 기록물로 분류하였고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다. 중앙정부인 육군본부(계엄사령부), 육군전투교육사령부(전남북계엄본소), 국군보안사령부 등에서 작성한 실시간 속보, 상황

일지, 평가서, 보병 제31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작전일지, 전투상보, 공수제7특전여단, 제11특전여단, 제3특전여단, 505보안부대의 일지 등이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계엄포고령의 시달과 함께 계엄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 비상계엄 및 소요사태에 대한 지시에 관한 공문서를 생산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하는 역할을 했다. 전남도청, 광주시청, 동구청, 광주경찰서 등 지방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는 5.18사태일지, 피해상황, 수습대책, 복구기준, 시체 매장계획, 사망자 인적사항 조사보고, 매장자 명단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군사법기관의 기록물은 5.18과 관련된 군검찰부 수사기록,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기소증지자 기록, 진술 조서, 공판 조서, 판결문 등의 군사재판자료 등이 있다.

세 번째로 의료기관의 기록물은 광주지역 내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적십자병원 등의 기록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과 학생들의 기록물로 진료기록부, 병상기록부 등이 주류를 이룬다.

네 번째로 언론사, 시민, (재)5.18기념재단,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 등이 있다. 사건이 발발했던 당시 사진들은 각종 신문사 사진기자들에 의해 대부분 촬영되었고 '전남매일', '동아일보', '전남일보', '중앙일보' 사진기자들이 남긴 사진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당시 시민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은 투

사회보, 성명서, 선언문 등과 당시 항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문자와 음성, 영상 등의 증언 기록들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이하 오픈아카이브) 웹사이트를 통하여 '5.18'이라는 키워드로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장기록을 검색하고 5월 22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위치한 5.18기록관 방문을 통해 전시물을 관람하여 관련 소장기록을 확인하였다.

오픈아카이브 검색 결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기록물이 총 4,72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기록물의 대부분은 사건 당시의 자료들과 이후에 행해진 법적, 행정적 조치에 관한 기록물이었다. 이 중 문서사료 및 사진사료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예술계 등에서 민주화운동의 적법함과 당시 신군부의 문제성을 바로잡고자 한 관련 기록물들이 검색되었다.

5.18기록관은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생산된 기록물이 보존되어있으며 일자별, 주제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술 및 영상기록은 광주시민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신군부의 야만성을 전달하거나 그 역사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재수첩, 일기장, 선언문, 호소문, 협조문 등의 기록물들은 5월 18일부

<표 1>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기록물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기록물							
총 건수	문서사료	사진사료	영상사료	박물사료	자료분류기술	구술	자료콘텐츠
4,726건	3,938건	760건	8건	11건	2건	1건	6건

터 10일간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항쟁과 신군부의 불법적인 탄압을 멈추기를 바라는 호소, 그리고 종교계로 보내는 협조문의 존재도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5.18기록관의 기록물들은 DB 구축 중에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이관을 진행 중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물들은 5.18기록관 전시물로 방문을 통해 접할 수 있다.

2.2 PBL(Problem Based Learning) 모형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의 약자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중심학습을 의미한다. 그 정의를 자세히 보자면 먼저 Barrow와 Tamblyn은 “문제에 대한 이해나 해결책을 향한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 정의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이 조교의 관리 하에 소집단으로 문제를 다루는 교수-학습 접근”이라 정의했다(박혜영, 김정주, 2012; Barrows & Tamblyn, 1980). 한편 김주현(2010)은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학습, 협동학습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방법 및 학습 환경을 말하며, 학습자가 실제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길러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기를 수 있게 하는 학습법으로 정의했다. 요컨대, PBL은 문제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PBL은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논

의되어 왔고 그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박혜영, 김정주, 2012).

첫째, PBL은 현실에 존재할만한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이때 제시되는 문제는 실제성, 맥락성, 비구조성의 특징을 가져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며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양한 문제를 의미한다.

둘째, PBL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이다. 기존의 암기식 학습법에서 탈피해 학습자가 해결책을 위해 근본적 문제와 필요한 정보를 다뤄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때 교사는 중간자로서 지식의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PBL은 소그룹 협동 학습을 통한 상호작용이다. 학습자들은 협동 학습 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식 공유, 사고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으로 PBL을 제안한 이유는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동일한 이론적 기반을 가진 PBL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특히 역사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학습 자료원으로서 제시하는 국사수업에 PBL을 적용했을 때 학습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기 때문이다(이현아, 2006). 또한 PBL은 다른 과목과의 협력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의 이용을 역사수업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의 확장을 유도할 것이다.

3. 5.18기록물 기록정보콘텐츠 현황 분석

2015년 8월 16일 현재 5.18기록물을 소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기록관은 국가기록원, 오픈아카이브, 5.18기념재단이었다. 각각의 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기록정보콘텐츠 - 콘텐츠 유형별 - 테마 - 5.18민주화운동’에서 5.18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성이 단조롭고 온라인

에서만 학습이 가능한데다 학습자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이용자층이 명확하지 않아 난이도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교사나 학생의 입장에서 관련 교육과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정보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구성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한편, 오픈아카이브는 현재 ‘오픈아카이브홈페이지 -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 1980 5.18 민주화운동’에서 5.18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는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온라인 게시판에 사진과 사진일지, 관련인물 등과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기록정보콘텐츠

<표 2>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현황 분석

	제공되는 기록의 유형			내용
	사진 기록	동영상	문서 기록	
그날의 기억 그리고 기록	√		√	<계엄포고문>, <시체처리현황> 등의 다수의 문서기록과 사진의 원문보기를 제공하고 이 기록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	√	√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후 ‘서울의 봄’부터 전남대학생과 공수대원의 첫 충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사진 및 5.18다큐멘터리 한편을 같이 제공하고 있음
화려한 휴가	√	√		5월 18일부터 25일까지의 광주봉쇄작전을 마무리한 시점까지의 내용을 주로 정부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진 및 5.18다큐멘터리 ‘기억을 기억하라’를 제공하고 있음
가자, 도청으로	√		√	5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상황을 시민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사진 및 <광주사태사망자> 등의 문서기록을 제공하고 있음
님을 위한 행진곡	√			윤상원, 박관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침
살아오르는 광주	√		√	5.18민주화운동이 종료된 후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사진기록과 더불어 <5.18치유대책추진>이라는 문서기록을 제공하고 있음
언론 다시 보기			√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신문보도를 다루며 총 12건의 기록을 제공하고 있음
그 외		√	√	동영상 기록물과 일반 기록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카테고리에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기술은 제공되지 않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사건 관련 동영상과 사건관련 기록물이 목록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의 특징은 각 페이지 하단에 '5.18 민주화운동 이후 5월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쟁점은 무엇인가?', '5.18민주화운동이 세계인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와 같은 간단한 퀴즈와 정답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점에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휘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한 점과 가독이 어려운 문서기록에 대하여 '읽기도우미'라는 타이핑된 해석본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현장에서 기

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픈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의 자세한 구성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마지막으로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5.18기념재단 사이트 - 5.18교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했다.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이용자층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난이도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온라인콘텐츠보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 PPT나 지도계획서 등이 더 많이 제공하

<표 3> 오픈아카이브 기록정보콘텐츠 현황분석

	제공되는 기록의 유형				비고
	사진 기록	동영상	문서 기록	기타 교육자료	
1980년 5월 왜 군인은 시민에게 총을 쏘았는가?		√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들로 구성된 플래시 영상으로 간단한 프롤로그형식으로 되어 있음
유신체제의 종말과 서울의 봄	√			√ (어휘설명 및 퀴즈)	<부마민주항쟁>, <신군부>, <1980년 서울의 봄> 시간 순으로 사진을 나열하고 있음
1980년, 5월 광주	√			√ (어휘설명 및 퀴즈)	광주의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별로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음
광주여 무등산이여	√	√	√	√ (타이핑 본 및 해석본, 퀴즈)	사진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 <80만 민주시민의 결의>와 같은 결의문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가 게시되어 있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운동	√		√	√ (타이핑 본 및 해석본, 어휘설명)	5.18민주화 운동 이후에 진상규명 운동에 관한 사진과 5.18특별법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문을 게시해 놓았음
광주항쟁의 결과와 의의	√			√ (퀴즈)	5.18민주화 운동 이후 만들어진 사적지의 사진이 있으며, 광주항쟁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음
생각나누기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김남주 시인의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게시판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지만 2010년도 이후론 새롭게 게시된 글이 없음
찾아보기				√	도서, 영상, 관련 기관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음

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5.18민주화운동교과서'라는 단행본을 자체 제작했다는 점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서까지 같이 편찬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공되는 다수의 기록정보콘텐츠들이 기록정보콘텐츠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기록물의 활용이 거의 없었고 사진만 간간히 사용될 뿐이었다. 또한 노래나 문학작품까지 기록물의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한 탓에 어디까지를 기록정보콘텐츠로 봐야할지 경계가 모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업데이트 일자가 2013년으로 내용 및 구성이 현재 교육현실에 맞을지 의문이 들었다. 실

제로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독이 힘들 정도로 구성이 난해하였다. <표 4>는 5.18 기념재단에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들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된 5.18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첫째, 대부분이 온라인 중심의 기록정보콘텐츠로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과 오픈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모두 온라인 콘텐츠로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또

<표 4> 5.18기념재단의 기록정보콘텐츠의 현황분석

		제공되는 기록의 유형				비고		
		사진 기록	동영상	문서 기록	기타 교육자료			
배움 마당	중등교사 교육자료	수업자료				√	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간지도계획'과 '단원별 지도 계획'이 있으며 교사들이 공유한 '시범수업자료'로 구성	
		사진자료	√					5.18 민주화운동교과서(기념재단 자체제작)에 수록된 사진과 설명글로 구성됨
		파워포인트 자료					√	5.18민주화운동의 전개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학습지, 수행평가지로 구성
		노래자료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노래 목록과 가사로 구성
		문서자료					√	수업사례, 문학작품, 학술자료실로 구성
자료 마당	교육 자료실	도서자료실	√		√	√	사진과 발췌된 문서기록 등으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교과서, 5.18민중항쟁과 정치·사회·역사 등 다수의 자체 발간한 도서자료를 PDF파일로 제공	
		멀티미디어 자료		√				희생학생 추모영상, 기억을 기억하라, 다큐멘터리5.18 등의 영상으로 구성
		오월의 노래					√	오월의 현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예술성 있는 노래로 구성
		5.18 인문수업안					√	5.18 인문수업안으로 철학, 문학, 영화, 음악에 관련된 자료로 구성됨
		문학작품 영상자료		√				5.18 문학작품 영상자료로 '5월', '구두닥아요'의 시 영상과 '우투리', '밤길'의 소설 영상으로 구성
		오월상생		√				단편 옴니버스 뮤직 애니메이션으로 총 5곡의 노래를 영상 이미지와 결합시켜 민주화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

한 대상 이용자층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교과단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사나 학생이라면 이를 수업시간에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고려되었다. 물론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 자체가 기록물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요컨대, 현재 제공되는 5.18기록물을 활용한 기록정보콘텐츠의 대다수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실제 수업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적절한 콘텐츠를 찾기 어려웠다. 둘째, 단일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어렵다. 국가기록원과 오픈아카이브가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콘텐츠는 단순히 지식을 제시하는 형태로 기록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단지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되고 자발적 학습이 어려워진다. 물론 오픈아카이브의 경우에는 간단한 퀴즈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보다 심도 있는 학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4. PBL 기반 교육프로그램 개발

4.1 고려사항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국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도윤지(2013), 심성

보(2007), 이은영(2011b)은 이용자를 선정해 특징을 분석하고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은영(2011b)은 학습주제를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콘텐츠에 필요한 일차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기록물의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도윤지(2013), 심성보(2007), 이은영(2011b)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개발된 콘텐츠에 대한 맥락정보의 정리와 해석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에서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4.1.1 이용자설정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용자층에 대한 설정이다. 이용자는 보통 학생이나 교사, 연구자, 일반 대중으로 나누어지며 이용자층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르고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이용자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이용자층을 고등학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학생을 이용자층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 때문이다. 첫째, 학생과 교사는 아카이브의 주요한 이용자이자 잠재적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계층으로 아카이브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용자층이라고 할 수 있다(심성보, 2007). 잠재적인 이용자에 대한 기록물의 제공은 기록물에 대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기록관의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줄 것이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으로서 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다. 따라서 이를 주제로 관련 기록물에 기반을 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을 대상 이용계층으로 공급하는 것은 학습자의 역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향상에 효율적일 것으로 고려된다.

4.1.2 교육과정분석

본 교육프로그램은 학교 수업시간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기록물과 연계 가능한 과목, 학습단원, 학습목표 등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실제 수업현장에서 진행되는 주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학습 성취도를 올리고 효율적으로 기록을 배치할 수 있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이은영, 2011b). 또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은 대상 이용자가 되는 고등학생들의 학습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해진다. 즉,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은 이용자층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학습 수준을 결정하도록 도우며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률과 지속적 이용 가능성을 촉진할 것이다.

4.1.3 소장 기록물 분석

소장 기록물의 분석은 이용자층과 교육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록물의 유형과 내용, 출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기록물을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록물의 분석은 소장물의 주제 및 양적인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다(이은영, 2011b).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 주제 기록인 5.18기록물을 활용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소장 기록물 분석

은 정해진 학습주제에 대한 주요기록물의 목록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PBL모형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일차사료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소장 기록물의 분석 후 기록물지도를 만들어 학습상황에 적절한 기록물을 선별하도록 한다.

4.1.4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선별된 기록과 기록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중개자 및 조력자로서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역할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물의 선별을 돕고, 맥락정보를 제공하여 기록을 해석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돕는다. 둘째, 이용자가 그 외 관련 기록물에 대해 문의할 시 정보검색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이용자가 기록물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목록화 하여 학습을 위한 환경을 지원한다. 넷째, 기록물 선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교사와 조율하여 교육에 효과적인 기록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이용자가 기록물지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선별된 기록 이해에 필요한 해석본, 타이핑본, 발췌본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교사와 협력해야 한다. 즉,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1.5 교사의 역할

교사는 본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지식 전수자 아니라 원활한 학습을 위한 진행자로서 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겸해야 한다. 진행자 및 조력자로서의 교사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기록관 이용 및 기록에 대한 교육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기록관 및 기록에 대한 이질감을 줄이도록 돕는다. 둘째,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키워드를 제공하고 제시되는 맥락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셋째, 제시되는 문제의 이해부터 문제의 해결까지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학습자와 평가내용과 방식을 정한다. 넷째,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협력하여 기록관 및 기록에 대해 이해한다. 다섯째, 새로운 기록물이나 발췌본, 번역본, 해석본, 읽기 어려운 기록물에 대한 타이핑본이 필요한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요청하여 획득하거나 유사내용을 가진 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상의한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기록물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 요구사항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존재한다. 김희정(2008), 도윤지(2013), 설문원과 김익한(2006), 이은영

(2011b)은 기록관 이용 및 기록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도윤지(2013), 심성보(2007), 이은영(2011b)은 기록의 맥락정보, 기록분석활동지, 용어집, 해석본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상의 요구사항들과 함께 기록물지도라는 도구를 추가하여 세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지도는 기록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기록물들 간의 관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4.2.1 기록관 이용 및 기록에 관한 교육

본 교육프로그램의 대상 이용계층으로 설정한 고등학생(교사포함)은 기록관과 기록에 대해 폭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김술, 2013) 기록물을 이용하는 수업에 있어서 기록관의 이용과 기록에 관한 교육은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록관의 이용에 관한 교육은 웹을 통해 기록관에 접근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예시적인 검색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또한 5.18기록관 및 다른 관련 기록관에 대한 방문이 예상되므로 기록관 방문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수사항에 포함하도록 한다.

기록관 이용 교육뿐만 아니라 기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가공된 자료들만 접해왔기 때문에 원문으로 제공되는 기록물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 분석을 진

행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록을 다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기록분석을 통한 기록에 대한 교육은 기록분석활동지¹⁾를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시선이 기록물로 먼저 향하도록 하는 효과와 문자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도윤지, 2013).

4.2.2 기록의 맥락정보

기록은 맥락을 통해 당시의 기억을 재현하며 가치를 실현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기록에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18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관련 홈페이지 중 가장 검색이 용이한 곳은 오픈아카이브였다. 오픈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검색하면 생산자, 생산일자, 형태, 구분, 분량, 등록번호, 기증자, 설명, 7개의 메타데이터

가 기록물과 함께 제공되는데 이러한 요소 중에 학습자가 기록물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제공하고자 했다. 7개의 요소 중 형태 및 구분은 기록물 유형으로 묶어 구분하고 분량, 등록번호, 기증자는 기록물의 관리요소로 간주하여 제외했다. 따라서 7개의 요소 중 제목, 생산기관(생산자), 생산일, 기록물의 유형, 내용에 관한 기술(description)정보를 선택하게 되었다. 한편 5.18기록물은 분산 소장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목, 생산기관(생산자), 생산일, 유형, 기술(description)에 소장기관도 맥락정보로 제공하여 검색 및 활용을 용이할 수 있게 했다.

4.2.3 기록분석활동지, 용어집, 해석본

기록분석활동지 <표 5>와 용어집, 해석본 등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록

<표 5> 기록분석활동지

1차 분석	1. 제목
	2. 기록유형(문서, 영상, 구술, 사진 등)
	3. 세부유형(선전용영상, 편지, 인터뷰, 방송, 뉴스, 공문서, 연설문 등)
	4. 생산날짜
	5. 생산자(생산기관)
2차분석 및 추론	6.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사람, 생각 등)
	7. 생산자(생산기관)으로 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8.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9. 기록물에서 알 수 있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0. 이 기록물은 누구를 위해, 왜 만들어졌을까요?
	11. 추측 가능한 당시 시대상 및 그 시대상을 알 수 있게 한 부분을 써보세요.
	12. 이 기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 이상을 써보세요.
	13. 이 기록에서만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있다면 자세히 써보세요.
	14. 기록을 보고 드는 의문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써보세요.
	15. 이전에 본적이 있는 유사한 기록이 있다면 본 기록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써보세요.

*NARA 워크시트 재구성

1) 기록분석활동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장 4.3.2에 제시하였다.

물 분석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록분석활동지는 기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기록하는 워크시트로 기록에 대한 이해 및 추론을 돕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록분석활동지는 NARA의 기록분석활동지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NARA에서는 현재 기록물이 구현되는 매체의 유형별로 기록 분석 활동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록이 제공될 본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록을 전부 유형별로 분석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문서, 사진, 영상, 구술기록의 분석 활동지를 통합하여 하나로 재구성하였다. 기록분석활동지의 구성은 기록의 1차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과 내용을 추론하고 분석하는 질문으로 이분화 되어있다. 1차 분석은 기록의 1차적 특성인 제목, 생산기관(생산자), 기록 유형 등을 묻는 것이고 2차 분석 및 추론은 기록 내용의 분위기나 시대상, 대상(청중) 등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학습자가 기록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더하여 교육 프로그램 특성상 생산기관이 다른 다수의 기록을 제공하는 만큼 다수 기록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맥락을 찾을 수 있도록 기록물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기록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1차 분석은 필수로 기록하게 하고 2차 분석 및 추론은 가능한 한 기록하도록 하게 했다. 한편, 용어집은 대상 이용자층이 기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어휘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 내용에 중 고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시대적 배경이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석본은 한문이나 외국어로 쓰인 기록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나 해석본을 말한다. 혹은 읽기 힘든 기록물에 대한 타이핑본 등이 이에 속한다(도윤지, 2013). 이와 같은 번역본이나 해석본, 용어집 등이 선행된다면 학습자가 기록물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은영, 2011a).

4.2.4 기록물지도

기록물지도는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중요한 콘텐츠로 한 번의 매핑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지도는 Cox의 지역 기록화 방안과 유사한 격자형(설문원, 2012)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바둑판배열의 형태로 구성한 후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차점에 일치하는 기록물을 배치하여 제공한다. 기록물지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록물을 분석하여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으면서 분류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카테고리 두 가지를 선정한다.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기록물의 성격을 보여 줄 수 있는 출처, 생산시기, 유형 등이 있을 수 있고 기억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공간), 사건의 시간, 인물 등이 있을 수 있다. 5.18 기록물의 경우 출처와 생산시기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역사적인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박정옥, 이명규, 2013) 출처와 생산시기가 5.18 기록물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것으로 고려되어 5.18기록물지도의 카테고리로 선정했다.

둘째, 선정된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각각의 기준에 한 개의 축을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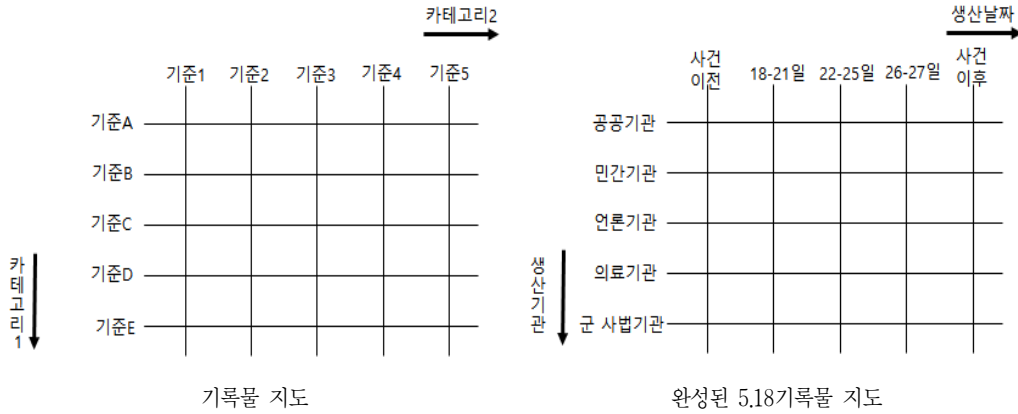
각 부여한다. 5.18기록물지도를 위해 선택된 카테고리에는 출처와 생산시기로 출처를 가로축으로, 생산시기를 세로축으로 설정했다. 출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군 사법기관 총 5개로 세분화하였으며 생산시기 역시 5.18민주화운동 이전, 사건기간인 18일부터 21일, 22일부터 25일, 26일부터 27일, 5.18민주화운동 이후 총 5개로 세분화하였다. 세분화 기준은 5.18기록관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출처별, 생산시기별 검색 카테고리 중 기록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과 박정옥과 이명규(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5개의 가로축과 5개의 세로축을 가졌으며 25개의 매핑점을 가진 5.18기록물지도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셋째,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차점에 매핑될 수 없는 기록물들을 찾아 예외로 분류하되 그 경우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안한다. 5.18기록물지도의 경우에는 교차점에 매핑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예외를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출처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생산자가 속한 기관으로 출처를 정의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이 생산한 기록물일 경우 비록 발행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생산자가 언론기관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출처를 언론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발견된 예외는 생산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였다. 일례로 '최건의 취재수첩'의 경우 생산시기가 1980년대로 기술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 세부기준으로 제시한 생산시기에 매핑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축에 매핑하는 것으로 하되 기록물을 제공할 때 맥락정보에 이에 대해 기

술하여 이용자가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규칙을 정했다. 마지막 예외는 생산시기가 길어 모든 생산시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광주소요사태 사망자 조서'라는 기록물의 경우 생산시기가 1980년부터 1990년으로 10년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기록물은 해당하는 모든 점, 즉 생산시기 5개의 모든 점에 매핑하도록 한다는 규칙을 정했다. 이처럼 기록물지도의 각 교차점에 매핑될 수 없는 기록물들의 예외를 찾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기록물지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해당 기록물을 기록물지도의 각 교차점에 매핑하여 기록물지도를 완성한다. 위의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미 기록물지도의 큰 틀은 완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 틀에 내용을 채워 넣는 것으로 모든 기록물의 매핑이 끝나면 단계는 마무리된다. <그림 1>에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기록물지도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을 위한 완성된 5.18기록물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기록물지도의 사용법은 지도에서 한 개의 축이나 한 개의 교차점을 선택하여 기록물목록을 확보한 후 교사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선별을 통해 학습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선택한 축이나 교차점에 없는 기록물이지만 교사가 학습목표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록물은 예외적으로 다른 축이나 교차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교사가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기록물을 선별할 있도록 돕도록 한다. 또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선별된 기록물에 대하여 발췌본,



〈그림 1〉 기록물 지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5.18 기록물 지도

타이핑본, 해석본 등을 제공하거나 유사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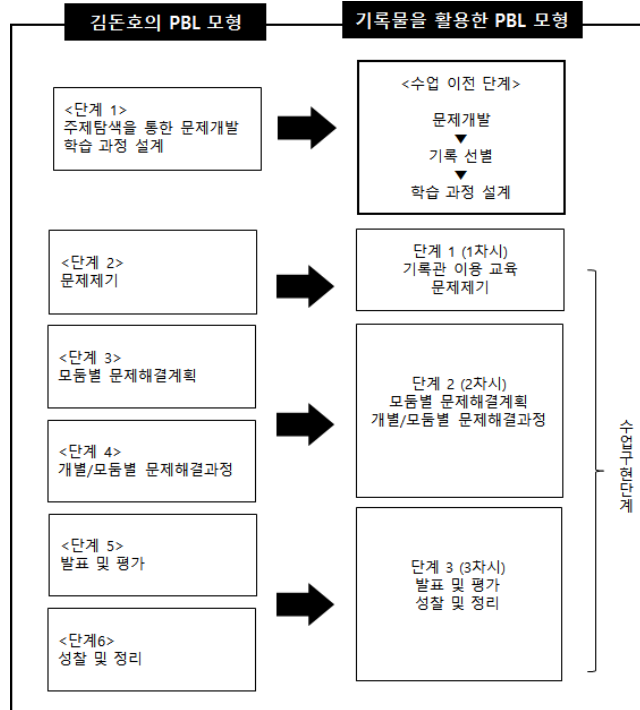
기록물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록물 접근에 대한 이용자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물지도는 한 컬렉션의 기록물일지라도 카테고리 및 그 세부기준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기록물지도를 구성할 수 있고 이용자가 한 눈에 기록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18기록물뿐만 아니라 다른 단일주제기록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주제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PBL 기본 모형

본 장에서는 PBL의 기본 모형을 재구성하여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PBL모형은 김돈호(2009)의 모형이다. 김돈호는 이영주(2004), 이현아(2006)의 연구를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

면서도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계된 모형을 토대로 실제 국사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수업 만족도 및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돈호의 PBL모형이 본 연구의 5.18기록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도 적합할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림 2〉의 좌측은 김돈호가 제안한 PBL모형이고 우측은 본 교육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이다.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은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이전 모형을 크게 수업이전단계, 수업구현단계로 나누어 이분화 하였다. 수업이전단계는 김돈호의 모형에서 1단계를 세분화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본 모형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단계이다. 수업이전단계는 다시 문제개발, 기록선별, 학습과정설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편 수업구현단계는 김돈호의 모형에서 2단계 앞에 '기록관 및 기록물 이용교육'이라는 단계를 새로 삽입한 후 삽입한 단계부터 6단계까지 총 6단계를 다



〈그림 2〉 기록물을 활용한 PBL 모형

시 2단계씩 묶어 3단계로 구분했다. 이는 학습 과정이 총 3차시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차시별 학습과정과 단계별 내용이 일치한다. 각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업이전단계는 수업에 제시될 문제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기록을 선별, 이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학습과정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다시 문제개발, 기록선별, 학습과정설계로 나누어진다.

1) 문제 개발

문제 개발 단계에서는 이용자와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설정한다. 이용자는 PBL모형과 기록관의 이용자층으로 예상되는 고등학생과 교사로 정했다. 한편 교육과정

의 분석은 기록물의 사용이 적합한 역사과목을 포함하여 PBL모형에서 제시될 문제에 관련된 다른 교과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관련 교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제안할 문제를 개발한다. 여기서 문제란 학습자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상황을 말하는데 이때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이면서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이어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정신을 이끌어 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이어야 한다.

2) 기록 선별

기록 선별 단계에서는 기록물 지도에서 기록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문제

가 개발되고 나면 교사는 기록물을 선별해야 하는데 이때 기록물지도를 이용한다. 기록물지도의 한 개의 축이나 한 개의 교차점을 선택하여 기록물 목록을 받고 그 목록에서 적절한 기록을 선별하도록 한다. 이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와 협력하여 교사가 필요로 하는 기록물의 선별을 도와야 한다. 교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록의 맥락정보에 대해 설명하거나 내용상으로 이해를 도우면서 교사가 수업에 사용할 적절한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선별된 기록은 맥락정보와 함께 학습자료원으로서 제시되고 이때 맥락정보는 학습자들이 기록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도운지, 2013).

3) 학습 과정 설계

학습 과정 설계 단계는 수업을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수업의 차시를 3차시로 정하여 수업 내용을 구체화 시켰다. 먼저 1차시는 기록관 및 기록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학습자가 제시된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2차시는 1차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3차시는 도출한 결과물들을 발표하고 평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3차시의 학습 과정은 수업구현 단계의 각 단계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전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수업구현단계로 넘어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수업구현단계는 3차시로 구성된 학습과정에 맞게

3단계로 나누었다.

(1) 1단계

1단계는 1차시 수업으로 기록관 이용 및 기록물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제시할 문제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단계이다. 기록관 이용에 대한 교육은 오리엔테이션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기록물에 대한 교육은 기록분석활동지 <표 5>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기록분석활동지는 한 건의 기록물을 교사와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내용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 기록물을 분석하게 하고 결과물 도출에 기록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기록관 이용과 기록물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이를 이해시킨다. 문제가 지향하는 학습목표를 인지시키고 유의사항들을 숙지시키도록 한다.

(2) 2단계

2단계는 2차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해결 과정을 설계한다. 해결과정에는 제시된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기록물 분석이 완료되면 기록물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3) 3단계

3단계로 3차시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팀

별로 도출된 해결책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발표형식은 교사가 정하도록 하고 평가는 팀원간, 팀내, 교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PBL모형의 문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결책에서 보여지는 창의력, 팀원간의 단합도, 완성도 등으로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은 학습자와 교사가 문제제시 단계에서 조율하거나 교사가 정할 수 있다.

이상의 3단계는 수업구현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의 능력이 중요한 단계이다. 수업이 전단계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했지만 수업구현단계에서는 큰 틀을 지키되 세부적인 수업진행은 교사의 능력에 따라 수업이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 전반에 교사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교류가 중요하다.

5. 프로그램 구현

5.18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사례는 수업구현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수업이전단계를 구현하기로 한다. 수업이전단계가 완성도 있게 완료되어야 수업구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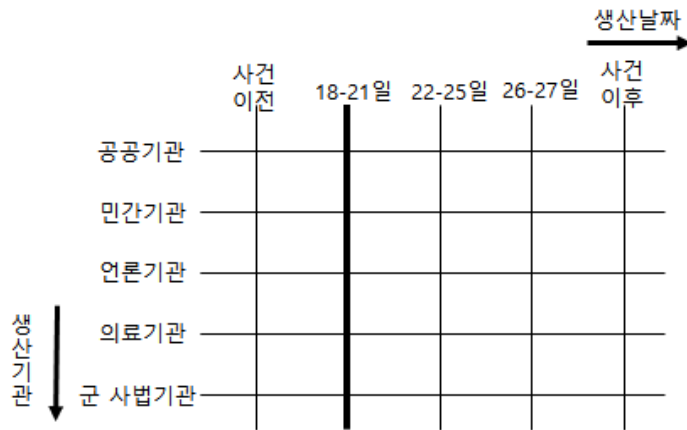
수업이전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개발로서 이미 이용자를 고등학생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영역에 속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내용요소에 속한다. 실제로 2013년 8월

30일 교육부 검정을 받은 M출판사 교과서는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대단원아래 2단원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이라는 소단원에서 2쪽 정도를 할애하여 5.18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8월 30일 교육부검정을 받은 B출판사 교과서도 역시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대단원 아래 3단원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소단원에서 한 문단 정도로 5.18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었다. 한편 역사를 제외한 관련교과로는 고1 국어와 고1 미술이 있었다. 고1 국어는 '정보의 조직과 활용'이라는 영역이, 고1 미술은 '영상매체의 활용'이라는 영역이 5.18기록물을 활용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과목의 영역으로 고려되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개발한다. PBL에서 제안하는 문제는 비구조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 구현에서는 <표 6>과 같이 PBL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5.18기념행사에 위한 홍보전담기획자 공모전라는 문제 상황을 설정했다.

문제개발이 완료되면 문제에 제시할 기록물을 선별한다. 기록물의 목록은 5.18기록물지도에서 한 개의 축이나 한 개의 교차점을 골라 기록물목록을 확보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학습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번째 세로축인 사건의 시발일인 18-21일 축을 선정하였다. 해당 축에 있는 기록물 중 총 10건의 기록을 선별했는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생산기관이 고르게 선별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표 6〉 사례 구현의 문제 상황 예시

교과목명	고1국사	
	단원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문제명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위한 홍보물 공모전 참여	
관련교과	고1 국어 - 정보의 조직과 활용 고1 미술 - 영상매체의 활용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분석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3.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4. 당시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 	
문제상황	<p>2016년 5월 18일 광주시청은 5.18기록관과 협력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큰 행사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행사 주최측은 홍보전담기획가를 찾기 위한 공모전을 열고자합니다. 홍보전담기획가는 행사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자신이 기획한 홍보물이 광주 전역에 배포될 것입니다. 행사 홍보물에는 당시의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물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제한은 없고 제출유형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이 공모전에 참여해 봅시다.</p> <p>〈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시된 기록물은 기록분석활동지를 통하여 분석한다. 2. 기록물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3. 홍보물을 접하는 연령대가 다양하므로 타겟층을 명확히 한다. 4.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호소력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 	



〈그림 3〉 5.18기록물 지도 활용 사례

과 군사법기관이라는 출처에서는 현재 접근하기 어려운 기록물들이 많고 생산시기가 사건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공공기관과 언론기관, 민간기관에 높게 두었다. 이렇

게 선별된 기록은 공공기관 2건, 민간기관 3건, 의료기관 1건, 언론기관 3건, 군 사법기관 1건으로 총 10건이다.

언론기관의 기록물 중 〈표 7〉의 3번 기록물

〈표 7〉 선별된 기록의 목록과 맥락정보

번호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기간	유형	내용 기술(description)	소장기관	웹 사이트
1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공공기관	1980	문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0년 5월 18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5.18 기념재단	https://518.org
2	광주소요사태 사망자 조서	공공기관	1980	문서	사망자 조사 후 종합한 것으로 인적 사항과 사망, 검시, 매장내용을 상세히 작성	국가 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518/paper4.do
3	취재수첩	언론기관	1980	문서	최건 전 동아일보 목포주재기자의 당시 현장 기록. 그러나 기사는 발간되지 않음	5.18 기록관	http://www.518archives.go.kr/
4	투사회보	민간기관	1980	문서	질박한 상황을 시민들과 타 지역에 알리기 위해 작성		
5	나경택의 사진	언론기관	1980. 05.18	사진	곤봉으로 맞고 있는 사진: 언론인이 찍었으나 기사로 발간되지 못함		
6	5.18일 동아일보 기사	언론기관	1980 05.18	문서	사건 당일 작성된 기사		
7	진료 기록	의료기관	1980	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및 검시 자료		
8	사건유품	민간기관	1980	박물	사건 당사자의 옷가지, 유품		
9	구술영상	민간기관	2010	영상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 기록을 구술 영상으로 보존		
10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재판기록)	군, 사법 기관	1981	문서	5.18 관련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형 확정 판결	5.18 기념재단	https://518.org

인 취재수첩과 5번 기록물인 사건사진은 비록 공식적으로 발간은 못 되었지만 생산자가 당시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5.18기록물지도에서 정한 예외규칙에 적용되어 생산기관을 언론기관으로 분류했다. 한편, 〈표 7〉의 9번 기록물과 10번 기록물은 18-21일 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9번 기록물을, 5.18민주화운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10번 기록물을 선별하기로 하였다.

선별된 기록물들은 9번 기록물과 10번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기록물지도에서 같은 축에 있는 기록물들로 생산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각각 다른 출처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에도 적절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선별된 기록물은 용어집과 해석본, 기록물의 맥락정보, 기록물이 소장되어있는 기관의 사이트, 관련 도서와 함께 〈표 8〉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학습자료원으로 제공한다.

기록 선별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학습과정 설계 부분으로 넘어간다. 학습과정은 기본모형의 3차시 구성과 동일하게 하고 실제 학습 현장에서 수업구현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기록물 관리전문요원은 교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표 8〉 학습자료원

학습 자료원		내용	활용 수업 단계
기록	기록물 목록 〈표 7〉	기록물 목록〈표 7〉과 함께 기록분석 활동지〈표 5〉, 용어집, 해석본 제공	수업구현단계 단계 2
기록관 사이트	오픈 아카이브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archives.kdemo.or.kr/	관련 동영상 및 사진 개요를 볼 수 있고 기록물의 원문보기 서비스가 가능	수업구현단계 단계 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http://www.518archives.go.kr/		
	국가기록원-5.18민주화운동 http://theme.archives.go.kr/next/518/viewMain.do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로서의 5.18(김대령) • 왜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까(이계형) • 5.18 민주항쟁(김진경)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과 그 과정 및 의의	수업구현단계 단계 2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단일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 5.18기록물을 현 교육과정과 구성주의로 뿌리를 같이하는 PBL모형을 적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5.18기록물을 활용한 PBL모형의 교육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현재 제시되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히 지식을 제시하는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를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수업에서의 사용을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하는 수업이전단계와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수업구현단계로 나누어져있다. 수업이전단계는 문제개발, 기록선별, 학습과정설계로 나누어지고, 수업구현단계는 본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단계로 1단계, 실제적인 문제해결인 2단계, 문제 해결에 대한 발표 및 평가의 시간을 갖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이전

단계와 수업구현단계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부분은 수업이전단계로 수업구현단계를 구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수업구현단계를 구현하지 못해 개념적 모형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아쉬웠던 점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제 학습 현장에서 구현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완성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구현단계의 실제 구현과 본 교육프로그램의 전체 구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기록물의 활용을 확장할 수 있다. 보통 기록물의 교육적 활용은 역사과목에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PBL모형의 경우는 역사뿐 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 과목, 국어, 영어, 미술 등과 연계할 수 있어서 기록물의 활용을 다른 과목으

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즉, 보다 많은 기록물의 활용이 예상되며, 이는 다시 기록관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다. 둘째, 교과학습의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여 단일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서 한국사 전반을 다루는 과목이다. 하지만 한 과목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일례로 프로그램 구현의 교육과정 분석 중 B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에 관련한 소단원에서 한 문단정도로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어서 사건의 맥락을 알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출처와 유형이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교과서 외의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학습자의 역사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PBL모형은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육 모형으로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역사적인 의식을 기르는데 탁월하다(김돈호, 2009). 이런 장점을 가진 모형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물을 다수 제공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퍼즐을 맞추듯 기록물을 구조화시켜 스스로 역사적 사건을 알아가고 다양한 시각들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게 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이로써 학습자는 교사가 교수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 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스스로 학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며 자신만의 뚜렷한 역사관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구현이 되었을 때 가지는 가치가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구현에 따른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발현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건, 김태영, 배삼열, 이은진, 김용 (2013).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중지능이론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99-125.
- 김돈호 (2009). 고등학교 국사수업에서 PBL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용. 역사교육논집, 43, 25-73.
- 김희정 (2008). 기록관의 교육서비스 사례유형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7-43.
- 도윤지 (2013). 기록물을 활용한 지역사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기록학연구, 36, 69-119.
- 박경석 (2008).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 박정옥, 이명규 (2013).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5-42.
- 설문원 (2012). 공간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김익한 (2006). 이승만시기 국무 회의록과 정부부처기록의 연관구조분석에 기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 심정보 (2007). 교수 학습자료 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 이영주 (2004). 중학교 국사수업에서의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의 적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이은영 (2011a).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조에 관한 연구: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8, 83-121.
- 이은영 (2011b). 교육과정 분석에 따른 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예시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165-188.
- 이현아 (2006). 중학교 국사 교수·학습에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최용규 (2000). 구성주의 학습을 위한 역사교과서 내용 구성방안. 歷史教育(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73, 177-199.
- Barrows, H. S. & Tamblyn, R. M. (1980). Problem based learning: An approach to medical educ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박혜영, 김정주 (2012). PBL 방법을 활용한 항공서비스 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방법연구, 24(3), 503-522에서 재인용.

[방송대담]

- 송선태 (2015, 5. 1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송선태 5.18 기록관 자문위원장 인터뷰 [라디오 방송]. 진행자 정관용.

[웹사이트]

-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검색일자: 2015. 5. 18. <http://www.518archives.go.kr>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사회과 교육과정. 검색일자: 2015. 6. 20. <http://ncic.kice.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검색일자: 2015. 5. 18. <http://archives.kdemo.or.kr>
- 5·18구속부상자회. 5·18 교육관. 검색일자: 2015. 5. 18. <http://518edu.co.kr>
- 5·18기념재단. 5·18교육관. 검색일자: 2015. 8. 16. <http://edu.518.org>
-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Archives. Retrieved May 30, 2015, from <http://www.archives.gov/education/special-topics.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rrows, H. S. & Tamblyn, R. M. (1980). Problem Based Learning: An Approach Medical

- Educ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Quoted in Park, Hye-young & Kim, Jung-Joo (2012). Analysis of Effects on Airline service education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Education Method Study*, 24(3), 503-522.
- Choi, Youg-Gu (2000). The History Textbook Contents Designing for Constructivism Study.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73, 177-199.
- Doh, Yun-Jee (2013). A Study on Developing Proced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of Secondary Education in Bus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69-119.
- Kim, Don-Ho (2009).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BL Lesson Model in High school Class of Korean History. *History Education Review*, 43, 25-73.
- Kim, Geon, Kim Tae-Young, Bae Sam-Yeol, Lee Eun-Jin, & Kim Yon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the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3(3), 99-125.
- Kim, Hee-Jung (2008). A Study on Educational Services of Archive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8(1), 27-43.
- Lee, Eun-Yeong (2011a). A Study on Structures of Archival Contents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Focusing on the TNA of UK and the NARA of US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8, 83-121.
- Lee, Eun-Yeong (2011b). Designing the Archival Contents Sample for Education Based on Curriculum-standards Analysi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1(2), 165-188.
- Lee, Hyeon-A (2006). The Impact of Problem-Based Learning on Korean history lesson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Lee, Young-Ju (2004). Application Method Study of Problem Based Learning in Middle School Histor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eong-Ok & Lee, Myoung-Gyu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13(2), 5-42.
- Park, Kyeong-Seok (2008). Study on the Regerence Service of 5 · 18 Pro-Democracy Movement Recor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 Seol, Moon-Won & Kim, Ik-Han (2006).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nts Based on Relational Structure of Minutes of State Council and Records of Ministries in the Period of Rhee

Regim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7(2), 115-136.

Seol, Moon-Won (2012).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Shim, Sung-Bo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

[Broadcasting debate]

Song, Sun-Tae (2015, May 19). CBS radio current affairs jockey is Jeong, Kwan-Yong: Interview with The May 18th records center advisor Song, Sun-Tae [Radio broadcasting]. By Jeong, Kwan-Yong.

[Website]

Democratic Uprising and The Memorial Society. Open Archives. Retrieved May 18, 2015, from <http://archives.kdemo.or.kr>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Records Center. Retrieved May 18, 2015, from <http://www.518archives.go.kr>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Th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 14: the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Retrieved July 20, 2015, from <http://ncic.kice.re.kr/nation.dwn.ogf.inventoryList.do>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The May 18 Education Center. Retrieved August 16, 2015, from <http://edu.518.org>

The May 18th The Arrest Injury Association. The May 18th Education Center. Retrieved May 18, 2015, from <http://518edu.co.kr>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tional Archives. Retrieved May 30, 2015, from <http://www.archives.gov/education/special-topics.html>